

110주년

# 道 日 기 념



포덕 159(2018)년 1월 18일



< 순 >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 전 봉 독(신앙통일과 규모일치)
1. 천덕송 합창(기념송1-3)
1. 기 념 사
1. 천덕송 합창(도일기념가)
1. 심 고
1. 폐 식

※ 축하행사 안내(천도교연합합창단 공연 등)

# 기 념 사

공경하는 전국의 동덕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춘암상사께서 의암성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으신 지 제110주년이 되는 도일기념일입니다.

춘암상사께서는 포덕전5(1855)년 2월 1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하포리에서 태어나시어, 포덕 24(1883)년 동학에 입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엄격한 수행과 독공을 통해 도인으로서의 귀감을 보이시어, 예산을 비롯한 내포 전역에 동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포덕 34(1893)년에는 덕의포 대접주로서 보은취회에 참여하시고, 이듬해 갑오년(1894)에는 동학농민혁명 전선에서 승전곡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를 이끄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된 이후 어려움에 처한 교단 상황에서 의암성사를 보필하여 교단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의암성사의 영단으로 동학에서 천도교로 대고천하신 후 교단이 안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후천 개혁의 기틀을 짜나가고,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걸고 국운의 향방을 가늠하던 포덕49(1908)년 1월 18일, 춘암상사께서는 제4세 대도주가 되셨습니다.

그날 이후 춘암상사께서는 30여 년 간 질곡의 시대상황과 시시비비가 분분하던 교단상황에서도 스스로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교단의 중추를 수호하며 장래를 기약하는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춘암상사께서는 기미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으로서 옥고를 치르신 후 의암성사 순도순국 이후 혼란해진 교단상황과 일제의 분열책동 및 탄압이 지속되는 시기를 지나면서도 교인들의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육성 사업에 성심을 다하셨습니다. 또한 6.10만세운동과 무인멸왜기도운동을 지도하시며 보국안민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데도 성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춘암상사께서는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하면서 그 종착점을 향한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던 포덕 81(1940)년,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교회가 다시 합동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내수동 자택에서 향년 86세로 환원하셨

습니다.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춘암상사의 위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업적과 보국안민의 정신을 기리고자 상사님 환원 50주년이 되는 포덕 131년(1990) 8월 15일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스승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각각의 천명에 따라 성공자거(成功者去)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이전에 스승님들의 생애 자체로서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사표(師表)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스승님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로서 이를 갈고 닦아 한울사람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춘암상사께서는 포덕 49(1908)년, 대도주가 되신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 의암성사를 모시고 교단을 이끄시

면서, 한편으로는 대도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암성사의 뜻을 혼신의 정성으로 받드심으로써 의암성사께서 세계사에 길이 빛날 기미년 3.1운동을 영도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는 일찍이 수운대신사께서 “남의 제자 되는 법은 백년결의 하온 후에 공경히 받은 문자 호말인들 변할소냐”라고 하신 말씀을 한 치도 어김없이 행하신 덕분이며, 작지사(作之師) 작지제(作之弟)의 이치로 사문성덕(斯門盛德)을 이룩한 전범(典範)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의암성사께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회활동을 의롭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춘암상사께서 대도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춘암상사 승통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술선수범하는 마음가짐을 회복하여야 하며, 또한 높아지기 전에 먼저 낮아져야 하고,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도의 기운이 쇠약해지는 것은 그 탓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심이 미약해지는 데 있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심이 미약해지는 것은 한울님의 이치기운이 우리의 안팎을 가득 채우고 일용행사 명령치 아니함이 없고, 간섭치 아니함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서, 한울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바를 내세우기에 급급하다 보면, 한울님의 뜻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가 곧 한울이라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 도의 기운은 흐트러지고 세상 사람들의

신망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져서 어느 사이엔가 고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춘암상사께서는 환원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법”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도성덕립의 길을 가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년 삼백육십일을 하루같이 정성, 공경, 믿음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난히도 추운 올 겨울입니다. 앞으로 더 심한 한파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추운 겨울의 밑바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봄기운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춘암상사께서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좋은 때와 시기를 맞이하리니 물질과 과학과 사회적 관념에 이끌리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수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금년 한 해도 지극한 정성으로 수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110주년 도일기념일을 맞이하여, 춘암상사의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익혀, 따르기를 다짐하면서 도일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59(2018)년 1월 18일

천도교 교령 이 정 희 심고

기념송

## 도일기념가

## 信仰統一과 規模一致 (신앙통일과 규모일치)

각자가 자기의 습관천을 믿지 말고, 오직 자아본래의 한울님을 믿는 것으로써 신앙을 통일하라.

교회의 전체 행복은 교인의 신앙통일과 규모일치가 되는데 있느니라.

신앙통일은 먼저 정신통일에서 시작 되는 것이니, 경전의 문구만을 따져서 연구하지 말고 오로지 대도의 진리를 직각하는데 노력하여, 조용히 한울 땅이 생기기 이전의 소식을 들으라.

다음은 규모일치니 규모일치는 곧 행동통일이니라.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의 힘으로 판단하여 제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오직 사회(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을 절대 엄수하라.

가족에는 가족사회 국가에는 국가사회 교회에는 교회사회 인류에는 인류사회가 있으니, 우리교회의 인내천의 일대목적과 성신환신.규모일치.지인공애의 삼대강령과 성경신법 사과와 주문.청수.시일.성미.기도의 오관실행은 교회로서 제정한 유일한 규모니라.

세계는 넓은 바다와 같고 우리 교는 기선과 같으니, 교인이 교회생활 하는 것은 기선 위에서 해상 생활을 하는 것과 같으니라. 기선은 구십구분을 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 교인은 구십구분을 한울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라.

교인으로서 교회의 덕화를 알지 못함은 요순 때에 요순의 덕화를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나의 목적인 바와 여러분의 목적인 바가 이미 같고, 여러분의 목적인 바와 대신사의 목적인 바가 또한 같은 것이니,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신이 일치해야 하느니라.

우리의 본래 정신이 꼭 일치하고 보면 천하가 달려들어 움직이고자 해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교인으로서 만일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겠는가. 목적달성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먼저 진실하고 일치한 정신으로 과거의 정신을 쇠신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건은 신앙을 구십구분으로 하고 규제를 일분으로 할 것이니, 교회에서 제정한 일분의 규제를 한개 자기의 지력으로 판단하여, 만약 이것을 준행치 않으면 이는 교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일분의 규제를 위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십구분의 신앙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교의 중요한 규제는 오관실행이니 교인된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실지로 체행하라.

## < 암상사 어록 >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에 죽고 참에 살리라』

『제 할일을 다 하고 제 잠을 다 자고 도는 언제 닦겠는가』

『병어리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유형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무형한 한울을 섬기랴』

### 春菴 朴寅浩 上師 略歷

**5년(1855) 2월 1일**

충청도 덕산군 장촌면 막동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박용호(朴龍浩), 고친 이름은 인호(寅浩),

자는 도일(道一), 호는 춘암(春菴)이시다.

아버지는 박명구, 어머니는 방씨이시다.

12세때 남씨 부인과 결혼하시다.

29세에 동학에 입도하시어 의관을 벗지 않으시고

10년간을 독공수련 하시다.

**포덕 35년(1894)** 갑오동학혁명 기포에 참가하시어 5만의 동학군을  
통솔하시며 덕의대접주로 활약하시다.

**포덕 48년(1907)** 차도주직을 받으시다.

**포덕 49년(1908)** 1월 18일 대도주직을 선수 받으시다.

**포덕 60년(1919)**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의 한 분으로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어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시고  
이듬해 10월 31일에 출옥하시다.

**포덕 79년(1938)** 멸왜기도를 지도하시다.

**포덕 81년(1940) 4월 3일** 환원하시니 향년 86세 이시다.